| 2026. 2. 14.(토) 조간용 |
|---|
|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13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 |

# 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

| 동물원장 | 여용구 | 500-7002 |
|---|---|---|
| 동물기획과장 | 김종수 | 500-7701 |
| 관련 홈페이지 | http://grandpark.seoul.go.kr | |

사진 없음 □ 사진 있음 ▣ 쪽수: 3쪽

## “자의 일본 기요” … 서울대공원 수달 한 쌍 일본 동물원으로

- 2023년 상호기증 협약의 결실… 레서판다 반입에 이은 수달 반출 완료
- 천연기념물 수달, 국가유산청 수출 허가 거쳐 9일(월) 일본 행
- 일본 도착하여 검역 및 현지 환경 적응 후 공개 예정

□ 서울대공원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 한 쌍이 9일(월) 일본 타마동물원으로 떠났다고 밝혔다.

□ 이번 수달 기증은 2023년 5월 16일 서울대공원과 일본 타마동물원이 체결한 “국제적 멸종위기종 보전을 위한 동물상호기증” 협약에 따른 것이다.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수달과 레서판다를 상호 교류하기로 했으며, 서울대공원은 2023년 11월 일본 타마동물원으로부터 레서판다 한 쌍을 우선 반입한 바 있다.

□ 수달은 국내외에서 엄격하게 보호받는 종으로, ‘자연유산법’에 따라 천연기념물로도 지정·보호되는 생물이기 때문에 국외로 수출하려면

국가유산청 승인이 필요하다. 이에 서울대공원은 수달 한 쌍(암수 각 1수)의 국외 수출 허가를 위해 공들여 준비해왔으며, 작년 1월 31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허가를 취득하였다.

□ 일본에 도착한 수달 한 쌍은 일정 기간 검역과 현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친 후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. 서울대공원은 이번 기증 이후에도 국제동물정보관리시스템(ZIMS)을 통해 수달의 혈통 정보를 비롯하여 수달의 생태환경, 번식, 진료 자료 등을 공유받는 등 타마동물원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.

○ 수달의 공개 시점은 타마동물원 공식 홈페이지(https://www.tokyo-zoo.net/)를 통해 안내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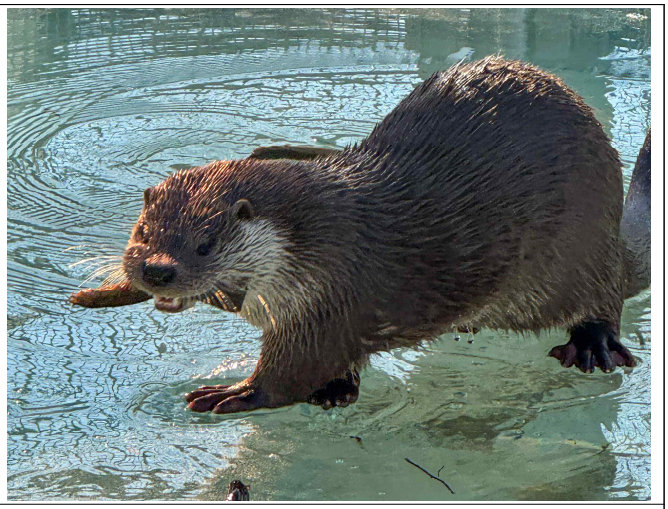
□ 그동안 서울대공원은 멸종위기종의 혈통 개선과 종 보전을 위해 해외 유수 동물원들과 활발히 교류해 왔다. 2017년과 2024년에는 러시아(노보시비르스크동물원)와 영국(하일랜드와일드라이프파크)으로부터 아무르표범 3수(수컷 2수, 암컷 1수)를 반입하였고, 2023년에는 캐나다(캘거리동물원)에서 레서판다 수컷 1수를 반입하는 등 국제적 보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.

□ 여용구 동물원장은 “이번 교류를 통해 서울대공원의 종보전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멸종위기종 보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”며, “지속적으로 세계 멸종위기종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종 보전과 동물복지 증진에도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## 붙임 1 수달 사진

수컷(7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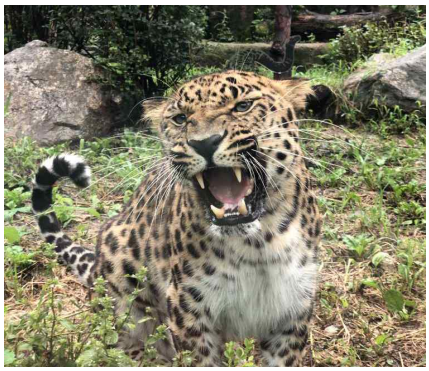
사진 제공:서울대공원



암컷(2살)

사진 제공:서울대공원

## 붙임 2 과거 반입 동물 사진



표범(수컷 2마리) *2017년 반입

표범(암컷) *2024년 반입

레서판다(왼쪽 암컷, 오른쪽 수컷)
(일본 타마동물원 반입)

레서판다(수컷)
(캐나다 캘거리동물원 반입)